

## “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논의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 협력방안 논의 -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4일(수) 오후 4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5월 7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6월 2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징후 조기 포착과 기관 간 의뢰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소각 또는 채무조정 대상자, 압류방지계좌 차주, 반복적인 채무 연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예: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연계 등)하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채무로 인한 어려움이 생사와 직결된 위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 위기가구를 촘촘하고 빠르게 발굴해서 복지안전매트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목숨을 살리는 정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차주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복지부-금감원 회의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044-202-3123)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홍화영 (044-202-317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혜 (044-202-3161)
담당 부서 <총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은정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류지성 (02-3145-8040)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임정환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전혜영 (02-3145-8285)

□ **회의 개요**

- (목적)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방안 논의
- (일시·장소) '26.6.24.(수) 16:00, 금융감독원 회의실
- (참석)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복지정책관, 지역복지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등
  -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6:00~ 16:0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 및 회의 안내</li> </ul>	
16:02~ 16:0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모두 발언</li> </ul>	제1차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모두 발언</li> </ul>	원장
	<발표>	
16:06~ 16:1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금융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방안</li> </ul>	복지정보기획과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①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금융권 역할 ②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li> </ul>	은행감독국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16:16~ 17:00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논의</li> </ul>	